



즉시 배포용: 2018년 6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JANUS** 판결에 대응하여 괴롭힘과 협박으로부터 노동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EO)에 서명

*Janus* 판결에 미국 최초로 대응하여, 노동조합 파괴 공작으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주정부 기관이 공무원의 개인 연락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

*연방 정부의 공격에 직면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Cuomo* 기록적인 보호 조치에 기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대법원의 **Janus** 판결에 대응하여 주정부를 대표하는 첫 번째 조치로 괴롭힘과 협박으로부터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은 노동조합원이나 노동조합원 후보자를 괴롭히는 개인 및 단체를 신고하여 주정부 기관이 주정부 공무원의 개인 연락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주지사는 또한 주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공 부문 공무원의 개인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원의 **Janus** 판결은 노동 운동을 파괴하려는 억만 장자들과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조장한 것입니다. 이제 동일한 세력이 파렴치하게 노동조합에서 떠날 것을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뉴욕주는 노동조합을 존중하는 주입니다. 제가 뉴욕주 지사로 재직하는 한, 우리는 노동조합원을 보호하고 노동 운동이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의 약속을 계속 지키도록 우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정 극우 단체들은 정보 정책의 자유를 통해 공무원의 연락처 정보를 얻고 있으며, 노동 조합 가입을 반대하는 전면적인 캠페인을 시작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공무원의 집에서 공무원들을 접촉하는 데 이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을 떠나도록 압력을 넣거나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기 위해 반노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Janus** 판결은 이미 수십만 명의

노동조합원이 있는 공공 부문 노조 설립을 획기적으로 줄이려고 한다는 식으로 예고되어 왔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원의 Janus 판결은 미국의 근면한 남녀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판결입니다. 뉴욕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노동조합을 지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유지하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미국의 근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전 지역에서 주민 가족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뉴욕에서 노동 운동의 힘이 훼손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뉴욕주 미국 노동 총연맹 산업별 조합회의(New York Stat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NYS AFL-CIO) 뉴욕주 지부의 **Mario Cilento**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님은 이 필수적인 보호 장치를 보장하여 다시 한번 근면한 남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요한 문제에 앞장서서 우리나라 전 지역의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의 모범이 되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협회(Civil Service Employees Association, CSEA)의 **Danny Donohue**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Janus 판결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 및 지역사회를 위해 대담하게 소신을 말하려는 노동자들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판결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은 우리 노동조합원들을 극우 집단의 극한 전술로부터 보호하고 괴롭힘과 협박으로부터 그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줍니다.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뉴욕이 노동 계급과 연대하고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재단(Public Employees Federation)의 **Wayne Spence**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Janus의 판결과 광신적인 보수주의자들의 반노동조합 운동이 노동조합의 존재를 상당히 위협하고 있지만, Cuomo 주지사님께서 노동 운동의 편에 서서 연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행정명령(EO)은 공무원을 위한 중요한 보호 수단을 제공하고 노동조합 파괴 공작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노동조합의 권리를 지키는 일을 꾸준히 지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교사 연합(New York State United Teachers, NYSUT)의 **Andy Pallotta**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연방 정부의 공격에 직면하여, 이 주의 남녀 노동자들을 꾸준히 지지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연방 정부가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함에 따라, 뉴욕주는 노동 계급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과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은 연방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에 직면하여 노동조합을 보호하겠다는 주지사의 공약을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대법원의 Janus 판결을 예상하고, 공공 부문 작업장의 노동조합 가입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최초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2011년부터 주지사는 노동자 착취 근절, 프로젝트 노동 협약 지원, 전체 조합비의 주정부 세금 공제 허용 등의 활동을 비롯하여 노동하는 뉴욕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